

원저

五行鍼法の 定立과정에 대한 史的연구

신동훈 · 김재홍 · 조명래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학교실

Abstract

A Clinical Study on the Formation of Ohaeng-Acupuncture

Shin Dong-hoon, Kim Jae-hong and Cho Myung-rae

Departme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Shin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for the formation of Ohaeng-acupuncture.

Methods : I referred to 《Classic on Difficulty》(難經), 《Ling Shu》(靈樞), 《Zhen Jiu Ju Ying》(針灸聚英), 《Yi Xue Ru Men》(醫學入門) and annotations were excerpted and record that noted the Ohaeng-acupuncture.

Results : The results obtained as follows.

1. 《Ling Shu》·《Jing Mai》 "Sheng Ze Xie Zhi, Xu Ze Bu Zhi"(盛則瀉之, 虛則補之) united with "Ying Sui Bu Xie"(迎隨補瀉), developed the principle of "Qu Xue" in 《Classic on Difficulty》.

2. 《Classic on Difficulty》·《The fiftieth Difficulty》 explained the interdependent relations, inter-restraining relations, the relations of subjugation and reverse restriction in illness condition between the five viscera according to the theory of generation, restriction, subjugation and reverse restriction in five elements. 《Classic on Difficulty》·《The sixty fourth Difficulty》 united five shu points (五俞穴) with five elements.

3. Zi jing Bu xie according to Xiang Sheng theory is developed from 《Classic on Difficulty》·《The sixty ninth Difficulty》 "Xu Ze Bu Qu Mu, Shi Ze Xie Qi Zi"(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 to 《Classic on Difficulty》·《The seventy ninth Difficulty》, 《Zhen Jiu Ju Ying》.

- 접수 : 2002년 6월 19일 · 수정 : 7월 9일 · 채택 : 2002년 7월 14일
- 교신저자 : 조명래,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동신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침구2과
(Tel. 062-350-7211. E-mail : mrcho63@hanmail.net)

4. Ta jing Bu xie according to Xiang Sheng theory is developed from 《Tu Zhu Nan Jing》 to 《Yi Xue Ru Men》.

5. The principle of treatment according to Zi-Ta jing Bu xie based Xiang Ke is developed from 《The seventy fifth Difficulty-Classic on Difficulty》 to Sa Am Do In(舍岩道人).

Key words :

Ohaeng-acupuncture(五行鍼法), Xu Ze Bu Qu Mu, Shi Ze Xie Qi Zi(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 Zi jing Bu xie, Ta jing Bu xie(自經補瀉, 他經補瀉)

I. 서론

침구요법은 음양오행설, 경락학설, 장상학설 등 동양의학의 기초이론을 근거로 하여 체표상의 일정한 부위에 각종 침구와 조작방법을 운용하여 물리적 자극을 주어 생체에 반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동양의학 의료기술의 한 분야이다¹⁾.

침법의 종류중 오행침법은 오행에서 상생관계와 賊邪관계를 肘膝관절이하에 분포한 십이경의 오행속성과 결합할 때 선택되는 혈을 자침하여 경락간 기혈의 허실과 성쇠를 조정하여 음양평형을 이루는 침법으로서 음양오행의 상생상극과 五俞穴의 특성을 응용하고 있으며 상생관계와 賊邪관계를 이론의 근거로 삼는다¹⁾.

오행침법은 허증과 실증에 있어서 상생관계를 이용한 虛則補其母와 實則瀉其子の 방법과 상극관계를 이용한 抑其官과 補其讐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치료에 있어서 오행배속된 五俞穴을 치료혈위로 하여 自經에서 2穴, 他經에서 2穴을 보사하는 처방을 치료에 사용한다²⁾.

오행침법은 임상에서 多用되고 있는데 이의 정립 과정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難經을 중심으로 역대의 한의서를 바탕으로 오행침법의 형성과정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II. 연구자료

1) 오행침법의 4혈로 구성되는 침처방의 정립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難經》을 중심으로 《靈樞》, 《難經本義》, 《難經集註》, 《鍼灸聚英》, 《圖註難經》, 《醫學入門》 등의 책을 살펴보았다.

2) 《難經》에서 《五十難》의 五邪, 《六十四難》의 五俞穴의 오행배합, 《六十九難》의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の 취혈원칙, 《七十五難》의 五行의 상극관계를 이용한 取穴원칙, 《七十九難》의 相生관계를 이용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の 구체적인 運用에 대해 살펴보았다.

III. 본론

1. 黃帝內經 靈樞⁴⁾

〈第一 九鍼十二原篇〉

往者爲逆, 來者爲順, 明知逆順, 正行無問. 迎而奪之, 惡得無虛, 追而濟之, 惡得無實. 迎之隨之, 以意和之, 鍼道畢矣.

凡用鍼者, 虛則實之, 滿則泄之, 宛陳則除之, 邪勝則虛之.

〈第九 終始篇〉

凡刺之道，畢于終始，明知終始，五臟爲紀，陰陽定矣。陰者主臟，陽者主腑，陽受氣于四末，陰受氣于五臟。故瀉者迎之，補者隨之，知迎知隨，氣可令和。

〈第十 經脈篇〉

肺手太陰之脈，起于中焦，下絡大腸，還循胃口，上膈屬肺，從肺系橫出腋，下循臚內，行少陰心主之前，下肘中，循臂內上骨下廉，入寸口，上魚，循魚際，出大指之端。其支者，從腕後直出次指內廉，出其端。

是動即病肺脹滿，膨膨而喘咳，缺盆中痛，甚則交兩手而脅，此爲臂厥。是主肺所生病者，咳，上氣喘渴，煩心胸滿，臚臂內前廉痛厥，掌中熱，氣盛有餘，則肩背痛，風寒，汗出中風，小便數而欠。氣虛則見背痛寒，少氣不足以息，溺色變。爲此諸病，盛則瀉之，虛則補之，熱則疾之，寒則留之，陷下則灸之，不盛不虛以經取之，盛者，寸口大三倍于人迎，虛者，則寸口反小于人迎也。

〈第七十六 衛氣行篇〉

刺實者，刺其來也；刺虛者，刺其去也。

2. 難經⁶⁾

〈五十難〉曰 病有虛邪，有實邪，有賊邪，有微邪，有正邪。何以別之。然 從後來者爲虛邪，從前來者爲實邪，從所不勝來者爲賊邪，從所勝來者爲微邪，自病者爲正邪。何以言之。假令心病，中風得之爲虛邪，傷暑得之爲正邪，飲食勞倦得之爲實邪，傷寒得之爲微邪，中濕得之爲賊邪。

〈六十四難〉曰 《十變》言陰井木，陽井金。陰榮火，陽榮水。陰俞土，陽俞木。陰經金，陽經火。陰合水，陽合土。陰陽不同，其意何也。然是剛柔之事也。陰井乙木，陽井經金。陽井庚，庚者，乙之剛也。陰井乙，乙者，庚之柔也。乙爲木，故言陰井木也。庚爲金，故言陽井金也。餘放此也。

〈六十九難〉曰 經言虛者補之，實者瀉之，不虛不

實，以經取之，何謂也。然虛者補其母，實者瀉其子，當先補之，然後瀉之。不虛不實，以經取之者，是正經自生病，不中他邪也，當自取其經，故言以經取之。

〈七十五難〉曰 經言 東方實 西方虛 瀉南方 補北方 何謂也。然 金木水火土 當經相平。東方木也 西方金也。木欲實 金當平之。火欲實 水當平之。土欲實 木當平之。金欲實 火當平之。水欲實 土當平之。東方肝也 則知肝實，西方金也 則知肺虛。瀉南方火 補北方水。南方火 火者木之子也。北方水 水者木之母也。水勝火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故瀉火補水 欲令金不得平木也。經曰 不能治其虛 何問其餘 此之謂也。

〈七十九難〉曰：經言迎而奪之，安得無虛。隨而濟之，安得無實。虛之與實，若得若失，實之與虛，若有若無，何謂也。然，迎而奪之者，瀉其子也，隨而濟之者，補其母。假令心病，瀉手心主脈，是迎而奪之者也。補手心主井，是謂隨而濟之者也。

3. 難經本義⁷⁾

【原文】

六十九難曰，經言虛者補之，實者瀉之，不虛不實，以經取之，何謂也？

然虛者補其母，實者瀉其子，當先補之，然後瀉之。

不虛不實，以經取之者，是正經自生病，不中他邪也，當自取其經，故言以經取之。

註

・《靈樞》第十篇載：十二經皆有盛則瀉之，虛則補之，不盛不虛，以經取之。

・假令肝病虛，即補厥陰之合曲泉是也；實則瀉厥陰之榮行間是也。

・先補後瀉，即後篇陽氣不足，陰氣有餘，當先補其陽，而後瀉其陰之意。然於此義不屬，非闕誤，即衍文也。

・不實不虛 以經取之者，即四十九難 憂愁思慮則傷心，形寒飲冷則傷肺云云者，蓋正經自病者也。楊氏曰：不實不虛，是謂藏不相乘也，故云自取其經。

4. 難經集註⁸⁾

· 丁曰 此經 先立井榮俞經合 配象五行 卽以十二經中 各有子母遞相生養 然後言用鍼補瀉之法 假令 足厥陰肝之絡中 虛卽補其足厥陰經合是母也 實卽瀉足厥陰經榮是子也 如無他邪卽當自取其經 故言以經取之也

· 楊曰 春得腎脈爲虛邪 是腎虛不能傳氣於肝 故補腎 腎有病則 傳之於肝 肝爲腎子

故曰 補其母也 春得心脈爲實邪 是心氣盛實 逆來乘肝 故瀉心 心平則肝氣通 肝爲心母

故曰 瀉其子也

· 不實不虛 是諸藏不相乘也 春得弦多及但弦者 皆是肝藏自病也 則自於足厥陰少陽之經

而補瀉焉 當經 有金木水火土 隨時而取之也

5. 鍼灸節要⁹⁾

〈六十九難〉曰，經言虛者補之，實者瀉之，不虛不實，以經取之，何謂也。然虛者補其母，實者瀉其子當先補之，然後瀉之。不虛不實，以經取之者，是正經自生病，不中他邪也，當自取其經，故言以經取之。

滑氏曰，靈樞第十篇載，十二經皆有盛則瀉之，虛則補之，不盛不虛，以經取之。虛者補其母，實者瀉其子。子能令母實，母能令子虛。假令肝病，虛卽補厥陰之合，曲泉是也。實則瀉厥陰之榮，行間是也。

〈七十五難〉曰，經言 東方實 西方虛 瀉南方 補北方 何謂也。然 金木水火土 當經相平。東方木也 西方金也。木欲實 金當平之。火欲實 水當平之。土欲實 木當平之。金欲實 火當平之。水欲實 土當平之。東方肝也 則知肝實。西方金也 則知肺虛。瀉南方火 補北方水。南方火 火者木之子也。北方水 水者木之母也。水勝火 子能令母實 母能令子虛 故瀉火補水 欲令金不得平木也。經曰 不能治其虛 何問其餘 此之謂也。

滑氏曰，金不得平木，不字疑衍。東方實，西方虛，瀉南方，補北方者，木金水火欲更相平也，木火土金水之欲實，五行之貪勝而務權也。金木水火土之相平，以五行所勝而制其貪也。經曰，一臟不平，所勝平之。東方肝也，西方肺也，東方實則知西方虛矣。若西方不虛則東

方安得而過於實耳。或瀉或補，要亦抑其甚而濟其不足，損過就中之道也。

〈七十九難〉曰 然迎而奪之者，瀉其子也。隨而濟之者，補其母也。假令心病，瀉手心主脈，是謂迎而奪之者也。補手心主井，是謂隨而濟之者也。

滑氏曰，迎而奪之者瀉也。隨而濟之者補也。假令心病，心火也。土爲火之子，手心主之脈大陵也。實則瀉之，是迎而奪之也。木者火之母，手心主之井中衝也。虛則補之，是隨而濟之也。迎者迎於前，隨者隨其後。此假心爲例，而補瀉，則云手心主，卽靈樞所謂少陰無腧者也。當與六十六難並觀。

6. 針灸聚英¹¹⁾

十二經是動所生病補瀉迎隨

《經》曰：十二經病，盛則瀉之，虛則補之，熱則疾之，寒則留之，不盛不虛，以經取之。又曰：迎而奪之，隨而濟之。又曰：虛則補其母，實則瀉其子。《難經》曰：經脈行血氣，通陰陽，以榮于身者也。其始(平旦寅時)從中焦注手太陰(肺)陽明(大腸卯)，陽明注足陽明(胃辰)太陰(脾巳)，太陰注手少陰(心午)太陽(小腸未)，太陽注足太陽(膀胱申)少陰(腎酉)，少陰注手心主(包絡戌)少陽(三焦亥)，少陽注足少陽(膽子)厥陰(肝丑)，陰復注于手太陰，如環無端，轉相灌溉。又曰：迎隨者，知營衛之流行，經脈之往來，隨其順逆而取之。又曰：所出爲井，所溜爲榮，所注爲腧，所行爲經，所入爲合。又曰：井者東方春也，萬物之始生，故言井；合者北方冬，陽氣入臟，故言合(舉始終而言，經腧在其中矣)。又曰：諸井者，肌肉淺薄，不足爲使也，刺井當刺榮(滑氏曰：補井當補合)。又曰：原者三焦之尊号，五臟六腑有病，皆取其原。又曰：瀉南方，補北方。今本《素》，《難》發揮于左，圓機之士，必以爲贅，姑以私備忘也。

十二經病井榮腧經合補虛瀉實

手太陰肺經屬辛金，起中腑，終少商，多氣少血，寅時注此。

是動病(邪在氣，氣爲是動)肺脹，膨膨而喘咳，缺盆

中痛, 甚則交兩手而督, 是謂臂厥.

所生病(邪在血, 血爲所生病) 咳嗽上氣, 喘渴煩心, 胸滿, 臑臂內前廉痛, 掌中熱. 氣盛有餘, 則肩背痛風寒(疑寒字衍), 汗出中風, 小便數而欠, 寸口大三倍于人迎; 虛則肩背痛寒, 少氣不足以息, 溺色變, 卒遺失無度, 寸口反小于人迎也.

補(虛則補之)用卯時(隨而濟之)太淵(穴在掌後陷中, 爲經土. 土生金, 爲母. 經曰: 虛則補其母)

瀉(盛則瀉之)用寅時(迎而奪之)尺澤(爲合水. 金生水, 實則瀉其子. 穴在肘中約紋動脈中)

7. 圖註難經¹²⁾

- 母生我者也 子我生者也. 母能令子虛 虛則補其母
- 子能令母實 實則瀉其子
- 假令 肝自病 得肝脈 善潔 面青 善怒 其脈實強

則瀉胆經火穴 陽火乃木之子也 脈虛微

則補膀胱經水穴 水乃木之母也 餘倣此

假令 善潔 面青 口乾 喜笑 瀉少陽之火有之 實者亦有之 當先補其不足 後瀉其有餘

若本經自病 不中他經 其眞氣未虛 邪氣未盛 當以本邪 金木水火土 隨時而取之也

8. 醫學入門¹³⁾

假如甲日 膽經行氣 脈弦者 本經自病也 當竅陰爲主 如虛則補其母 當刺腎之湧泉井 或膀胱之至陰井 實則瀉其子 可取心之中衝井 或小腸之少澤井 甲木 能制戊土 則不宜鍼

有以虛實 言者經言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 此 迎隨之概也

假令心病 鍼手心主脈 是 瀉其子也 鍼手心主井 是補其母也 木盛熱則生風 則瀉南以補北 水盛冷則生氣 則補木以抑水 如肺實肝虛 用鍼不補其肝而反實其肺 是謂實實虛虛 損不足而益有餘 殺人必矣 寶太師云 凡鍼 逆而迎奪 卽瀉其子也 如心之熱病 必瀉於脾胃之分 鍼順而順濟 卽補其母也 如心之虛病 必補於肝膽之分

IV. 고찰

침구요법은 음양오행설, 경락학설, 장상학설 등 동양의학의 기초이론을 근거로 하여 체표상의 일정한 부위에 각종 침구와 조작방법을 운용하여 물리적 자극을 주어 생체에 반응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동양의학 의료기술의 한 분야이다¹⁾.

침법중에서 오행침법은 오행에서 상생관계와 賊邪 관계를 肘膝關節이하에 분포한 십이경맥의 오행속성과 결합할 때 선택되는 혈을 자침하여 경락간 기혈의 허실과 성쇠를 조정하여 음양평형을 이루는 침법으로서 음양오행의 상생 상극과 五俞穴의 특성을 응용하고 있으며 상생관계를 이용한 自他經補瀉法, 賊邪 관계까지 확대 이용한 自他經補瀉法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침법은 難經의 五邪에서 응용된 것이다. 正邪는 不中他邪이므로 自經病의 치법에, 虛邪는 母能令子虛이므로 虛則補其母의 치법에 實邪는 子能令母實이므로 實則瀉其子의 치법에 賊邪는 克實則令我虛(亢則害) 할 때는 虛則抑其官(承乃制)의 치법과 克虛則令我實일 때의 實則補其讐의 치법으로, 微邪는 亢則侮로서 虛則瀉其微邪의 치법으로 각각 응용되고 있다³⁾.

4개의 穴로 구성되는 오행침처방은 매우 독특한 것으로 靈樞 經脈篇4)의 '盛則瀉之, 虛則補之'의 문구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經脈篇은 12경맥의 순행과 是動病, 所生病을 논하고 있으며 '盛則瀉之, 虛則補之'의 문구는 경락의 병증을 논한 후에 '盛則瀉之, 虛則補之, 熱則疾之, 寒則留之, 陷下則灸之, 不盛不虛以經取之'의 치료원칙에 속한 것으로 이 때의 盛과 虛는 人迎, 氣口脈의 大小를 비교하여 手足太陰經은 氣口가 人迎보다 3배, 手足少陰經은 氣口가 人迎보다 2배, 手足厥陰經은 氣口가 人迎보다 1배, 手足陽明經은 人迎이 氣口보다 3배, 手足太陽經은

人迎이 氣口보다 2배, 手足少陽經은 人迎이 氣口보다 1배 盛하면 盛이라 하고 반대의 경우를 虛라고 하였다⁴⁾. 이 때의 '盛則瀉之, 虛則補之'는 五行의 상생, 상극을 이용한 오행침법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병증이 實하면 瀉하고 虛하면 補한다는 의미이며 補瀉의 방법이나 補瀉穴位의 취혈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靈樞 經脈篇의 '盛則瀉之, 虛則補之'는 靈樞 九針十二原篇, 終始篇, 衛氣行篇⁴⁾의 '迎而奪之, 隨而濟之'의 迎隨補瀉를 통해 치료원칙에서 取穴의 원칙으로 발전하였다⁵⁾. 그러나 靈樞의 迎隨補瀉는 虛하면 補하고 實하면 瀉한다는 일반적인 취혈원칙이며 치료혈도 五俞穴이 아닌 일반적인 각경혈을 취혈하는 수준이다.

靈樞 經脈篇 '盛則瀉之, 虛則補之'의 치료원칙은 靈樞의 迎隨補瀉를 통해 취혈의 원칙으로 발전되어 秦越人의 難經에서 五行鍼의 취혈원칙으로 정립되기 시작한다. 먼저 病因을 인식함에 있어서 五十難⁶⁾에서 五邪개념을 도입하여 상생관계의 虛邪와 實邪, 相克관계의 賊邪와 微邪, 상생·상극관계와 무관한 正邪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다고 논하였다. 즉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의 부조화에 의해 질병이 발생한다고 하여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의 조정을 통한 질병의 치료를 가능하게 하였다.

취혈에 있어서 虛하면 補하고 實하면 瀉한다는 일반적인 취혈원칙인 迎隨補瀉는 六十九難⁶⁾의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로 진일보하여 오행의 상생관계에 의거하여 虛하면 오행상 母가 되는 穴을 補하고 實하면 子가 되는 穴을 瀉하는 구체적인 취혈원칙으로 발전된다. 또 七十九難에서는 '迎而奪之者, 瀉其子也, 隨而濟之者, 補其母'라는 문구뒤에 '假令心病, 瀉手心主脈, 是迎而奪之者也. 補手心主井, 是謂隨而濟之者也'라는 문구를 들어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の 구체적인 운용에 대해 제시하였다. 즉 補其母, 瀉其子の 母子를 自經의 오행배속된 五俞穴로 제시하여 靈樞의 迎隨補瀉에서 일반적인 각경혈을 치료혈로 사용하던 것에서 발전하여 오행배속된 五俞穴을 치료혈로 사용하여 五行의 相生, 相克관계의 조정을

통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自經補瀉法은 후대의 滯⁷⁾과 王⁸⁾이 六十九難의 주를 달면서 肝病에 虛할때는 母穴인 曲泉을 補하고 實할때는 子穴인 榮穴인 行間을 瀉한다고 五俞穴을 이용한 虛者補其母, 實者瀉其子の 예를 들었다.

또 七十五難⁶⁾에서는 '東方實 西方虛'라는 상극관계의 실조로 인해 발생된 허실증을 '瀉南方 補北方'하여 오행의 상극관계를 이용, 치료함으로써 오행침에서 상극관계를 이용하여 二穴을 취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⁹⁾.

치료혈위에 있어서 靈樞의 迎隨補瀉에서는 구체적인 穴位의 언급이 없이 일반적인 각경혈을 사용하는데 비해 難經에서는 오행배속된 五俞穴을 치료혈위로 제시하였다. 즉, 六十四難⁶⁾에서 五俞穴을 오행에 배속하고 음양경의 五俞穴의 오행배속의 차이를 剛柔之事로 설명함으로써¹⁰⁾ 오행침에서 오행상생관계에 의한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の 취혈원칙에 오행배속된 五俞穴을 이용하여 오행의 상생, 상극관계의 조정을 통한 치료를 가능하게 하였다.

難經을 통해 정립되기 시작한 오행침법의 취혈원칙은 明代의 高武에 의해 오행의 상생관계를 통한 自經補瀉法으로 제시되었다. 高¹¹⁾는 針灸聚英(1529刊)에서 靈樞의 '十二經病, 盛則瀉之, 虛則補之, 熱則疾之, 寒則留之, 不盛不虛, 以經取之. 又曰: 迎而奪之, 隨而濟之'를 제시한 후 12경의 유주시간과 難經의 五俞穴과 六十九難과 七十五難의 내용을 기재하고 十二經病井榮臉經合補虛瀉實 篇에서 12경의 유주시간에 따라 虛할때는 子가 되는 時에 自經의 母穴을 補하고 實할때는 유주시에 自經의 子穴을 瀉한다고 하여 오행의 상생관계를 통한 自經補瀉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明代의 張世賢은 圖註難經(1510刊)¹²⁾에서 六十九難의 주를 달면서 79難에서 제시된 自經補瀉와는 달리 他經補瀉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肝病을 예로 들면서 實證에 膽經의 火穴을 瀉하고 虛證에 膀胱의 水穴을 補한다고 하여 79難에서 제시된 肝病의 實證에 肝經의 火穴을 瀉하고 虛證에 肝經의 水穴을

補하는 自經補瀉와는 다른 他經補瀉法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張의 他經補瀉는 肝의 虛證에 腎經의 水穴을 補하고 實證에 心經의 火穴을 瀉하는 오행침의 他經補瀉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다. 張世賢에 의해 제시된 他經補瀉는 李梴¹³⁾의 醫學入門(1575刊)에서 五行鍼의 他經補瀉와 유사한 모습을 나타낸다. 이는 '凡鍼 逆而迎奪 卽瀉其子也 如心之熱病 必瀉於脾胃之分 鍼順而順濟 卽補其母也 如心之虛病 必補於肝膽之分' 라고 하여 心病을 예로 들어서 實證에는 脾胃經을 瀉하고 虛證에는 肝膽經을 補한다고 하여 五行鍼의 他經補瀉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으나 구체적으로 脾胃經의 土穴, 肝膽經의 木穴이라는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高와 張 등에 제시된 自, 他經補瀉法은 이조시대 舍岩道人에 의해 오행침법의 체계로 흡수된다. 사암 오행침은 井 榮 兪 經 合에 속한 木 火 土 金 水의 오행혈에 소속된 경혈을 선택하여 장부의 허실에 따른 침구보사법을 상생관계 뿐 만 아니라 상극관계까지 결합시키고, 여기에다 自經補瀉原則에 他經補瀉法을 응용하여 발전된 침법이다.

舍岩五行鍼法은 難經 六十九難의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의 원칙으로 虛證의 경우 自經의 母性穴과 母性經의 母性穴을 補하며 實證의 경우 自經의 子性穴과 子性經의 子性穴을 瀉하는 방법으로 2개의 穴을 선택한다. 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秦越人, 高武, 張世賢, 李梴 등에 발전된 自經補瀉法과 他經補瀉法을 하나의 체계로 흡수한 것이다. 독특한 점은 허증의 경우 補其母뿐만 아니라 抑其官의 원칙에 의해 二穴을 選穴하고, 실증의 경우 瀉其子뿐만 아니라 補其讐의 원칙에 의해 二穴을 選穴하는 것이다. 즉 허증의 경우 自經의 母性穴과 母性經의 母性穴을 補하고 여기에 自經의 賊性穴과 自經의 賊邪가 되는 賊性經의 賊性穴을 瀉하며, 실증의 경우 自經의 子性穴과 子性經의 子性穴을 瀉하고 自經의 賊性穴과 自經의 賊邪가 되는 賊性經의 賊性穴을 補하는 것이다.

상극관계에 의한 自他經補瀉는 기존의 상생관계에 의한 自他經補瀉와는 다른 독특한 보사법으로 難

經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료된다. 즉 五十難에서 '從後來者爲虛邪, 從前來者爲實邪, 從所不勝來者爲賊邪, 從所勝來者爲微邪, 自病者爲正邪'의 五邪를 제시하여 오행의 병리상태는 상생관계의 부조화뿐만 아니라 상극관계의 부조화에 의해서도 생긴다고 보고 七十五難에서 오행의 상극관계에 대해 논하고 상극관계의 부조화에 의해 생긴 '東方實, 西方虛'의 병리상태를 '瀉南方, 補北方'의 상극관계의 조정을 통해 치료하였다.

難經의 상극관계에 의한 병리상태(亢則害)와 상극관계를 이용한 치료(承乃制)는 오행침법에서 抑其官, 補其讐의 원칙에 의해 自他經補瀉로 나타난다. 즉 상생관계의 自他經補瀉와 유사하게 自經에서 一穴을 選穴하고, 상극관계가 되는 경에서 一穴을 選穴하고 허실에 따라 보사하게 된다.

상극관계를 이용한 自他經補瀉는 상생관계를 이용한 自他經補瀉와는 달리 難經 이후에 이에 대해 언급한 문헌이 보이지 않으며, 舍岩道人이 難經을 통해 독창적으로 창안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헌에 영향을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오행침의 취혈원칙은 靈樞 經脈篇의 '盛則瀉之, 虛則補之'에서 유래되어 靈樞의 迎隨補瀉를 통해 取穴의 원칙으로 발전되어 秦越人の 難經에서 정립되기 시작한다. 難經에 이르러 五十難에서 五行의 병리상태를 상생, 상극의 부조로 보고 六十九難의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의 원칙과 六十四難의 오행배속된 五俞穴을 치료혈로 사용하여 七十九難에서 心病을 예로들어 經絡의 自經補瀉法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명시대에 高武가 針灸聚英에서 12經絡의 是動病, 所生病과 함께 각경락의 自經補瀉法을 유주시간과 연관시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明代에 張世賢은 校正圖註難經에서 自經補瀉法을 他經補瀉法으로 확대했으며 李朝 선조시대에 이르러 舍岩道人이 오행의 상생관계를 통한 自經과 他經補瀉法에 75難의 상극관계를 결합하여 自他經에서 補瀉穴을 취하는 舍岩陰陽五行針刺法을 완성하였다.

V. 결론

임상에서 多用되고 있는 오행침법의 정립과정에 대해 역대의 한의서를 바탕으로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오행침의 취혈원칙은 靈樞 經脈篇의 '盛則瀉之, 虛則補之'에서 유래되어 靈樞의 迎隨補瀉를 통해 취혈의 원칙으로 발전되어 秦越人の 難經에서 정립되기 시작한다.

2. 難經 五十難에서 五邪의 개념으로 오행의 병리상태를 상생, 상극관계의 부조화로 보고 六十四難에서는 五俞穴을 오행배합하였다.

3. 상생관계에 의한 自經補瀉는 六十九難에서 '虛則補其母 實則瀉其子'의 원칙을 제시하고 七十九難에서 心病을 예로들어 經絡의 自經補瀉法으로 발전되었으며 明代 高武가 針灸聚英에서 각경락의 自經補瀉法을 유주시간과 연관시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4. 상생관계에 의한 他經補瀉는 明代에 張世賢이 校正圖註難經에서 제시하였고 李梴에 의해 오행침법과 유사한 형태를 띠게 되었다.

5. 상극관계에 의한 自他經補瀉는 難經 七十五難에서 상극관계에 의한 병리상태(亢則害)와 치료원칙(承乃制)가 제시되었고 사암도인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VI. 參考文獻

1. 全國韓醫科大學鍼灸經穴學教室編著. 針灸學(下). 서울 : 集文堂. 1994 : 1129-1136
2. 趙世衡. 舍岩鍼法體系의 研究. 서울 : 成輔社. 1987 : 27-30
3. 정인기, 강성길, 김창환. 五俞穴을 이용한 鍼法의 比較 考察. 大韓針灸學會誌. 2001;18(2): 186-199
4. 傳統醫學研究所. 黃帝內經 靈樞. 서울:成輔社. 1995 : 14-15, 113, 128-159, 574-575
5. 강성길, 김재규. 迎隨補瀉法에 관한 문헌적고찰. 동서의학. 1978;3(4): 20-26
6. 李駟. 黃帝八十一難經纂圖句解.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 199-201, 244-247, 275-277
7. 滑壽. 難經本義.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5 : 88, 92-94
8. 王九思. 難經集註.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 13-14, 19-20
9. 高武. 鍼灸節要. 서울: 一中社. 1992 : 卷1 3-5, 13-14
10. 김선호, 김용진, 윤창렬. 난경중 수혈편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논문집. 1995;4(1):153-164
11. 鍼灸名著集成, 針灸聚英. 高武. 北京: 華夏出版社. 1996 : 714-716
12. 張世賢. 校訂圖註難經. 臺北: 大孚書局. 1976 : 12-13, 17-18
13. 醫學入門. 李梴. 서울: 大成醫學社. 1994 : 上卷 291, 299